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배 지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자녀 관련 변인에 따른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

2016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이 미 현

자녀 관련 변인에 따른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

배 지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이 미 현

인 준 서

이미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5월

심사위원장.....(인)

심 사 위 원(인)

심 사 위 원(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자녀 관련 변인(자녀의 수, 성별, 연령)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보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 관련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 관련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1세~ 만 5세 자녀를 둔 학부모 500명(아버지 250명, 어머니 2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그 중 408부를 회수하였고,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되었거나 부모의 설문지 중 하나만 회수되어 분석이 부적합한 자료 64부를 제외한 344부 설문지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Schaefer(1959)의 MBRI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를 이원영(1983)이 번안하고 배문주(2005)가 수정, 보완한 양육태도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우리 문화에 맞도록 문항을 구성한 김기현과 강기현(1997)의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한 박경미(2014)의 연구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자녀 관련 변인(자녀의 수, 성별, 연령)에 따른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정과 One-way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 관련 변인(수, 성별, 연령)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첫째 자녀의 경우, 만 5세 이상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다른 연령에 비해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의 경우에는 만 3세 이상의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다른 연령에 비해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와 둘째의 연령 차이를 살펴본 경우에는 둘째 자녀와 4년 이상 차이가 나는 어머니의 경우에 통제적 양육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수, 성별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 관련 변인(수, 성별, 연령)에 따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자녀의 성별, 연령에 따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차이가 나타났다. 첫째 자녀의 경우 여아의 부모가 남아의 부모보다 일상적 양육스트레스,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의 관계에 따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매 또는 남매의 부모가 형제 또는 외동의 부모보다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수에 따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본 결

과 양육스트레스는 애정적 양육태도, 자율적 양육태도와 부적 상관관계를 거부적 양육태도는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통제적 양육태도는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스트레스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며 양육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애정적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6
3. 용어의 정의	7
II. 이론적 배경	9
1. 부모의 양육태도	9
1) 양육태도의 개념과 유형	9
2)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14
2.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18
1) 양육스트레스의 개념	18
2) 양육스트레스의 요인	20
3. 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의 관계	24
III. 연구방법	26
1. 연구대상	26
2. 연구도구	29
3. 연구절차	32
4. 자료분석	33

IV. 연구결과	35
1. 자녀 관련 변인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35
2. 자녀 관련 변인에 따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39
3.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의 상관관계	45
V. 논의 및 결론	47
1. 논의	47
2. 결론 및 제언	52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부모의 일반적 배경	26
<표 2> 자녀의 일반적 특성	28
<표 3> 부모의 양육태도 질문지의 하위요인 및 문항번호와 신뢰도 계수	30
<표 4>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질문지의 하위요인 및 문항 번호와 신뢰도 계수	31
<표 5> 첫째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의 차이	36
<표 6> 둘째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의 차이	37
<표 7> 첫째와 둘째 자녀의 연령 차이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의 차이	39
<표 8> 첫째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의 차이	40
<표 9> 첫째와 둘째 자녀의 관계의 따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의 차이	42
<표 10> 첫째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의 차이	43
<표 11> 둘째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의 차이	44
<표 12>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스트레스의 상관관계	46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영유아기는 인지, 정서, 사회, 신체적 발달 등 성장 발달에 가장 기초가 되는 시기이며, 급격한 발달을 이루게 되는 결정적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영유아기에 주어지는 환경과 다양한 경험은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영유아가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은 가정, 유아교육기관, 지역사회로 나눌 수 있다.

가정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경험하는 사회적 환경이며 인적 환경인 부모가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녀에게 발생하는 결과는 다른 모습을 띠게 된다(정계숙, 김미정, 하은실, 2012). 인간은 출생과 동시에 가족 구성원이 될 뿐만 아니라, 부모 등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관계를 맺으며 영유아기를 보내게 된다. 특히,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며 자녀는 주양육자인 부모와의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 삶의 양식 및 올바른 가치관 등을 습득하게 된다(강민정, 2014). 또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발달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김미정, 2010).

아동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17세기 전까지는 엄격한 훈육 및 체벌이 효율적인 양육태도로 여겨졌으며,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소아의학 및 심리학의 발달로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신경중, 1993). Becker(1964)에 의하면 양육태도는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할 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나 태도를 의미하며, 양육

태도는 자녀의 성격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김명숙, 2016 재인용). 또한 배문주(2005)는 양육태도가 부모와 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한다고 보고하였고, 선행연구에 의해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김미정, 2010).

양육태도 중 자율, 애정, 관심 등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유아의 자기 효능감(최미향, 2003)과 사회적 책임감(최경숙, 1982)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 거부, 강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공격적인 태도(조은하, 2013), 주의력 결핍, 미성숙행동(손옥련, 2003)과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의 성장과정, 성격 뿐 아니라 가정 분위기 및 환경 등의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강민정, 2014), 자녀의 수, 출생순위, 성별, 연령 등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변수연(2010)과 이대경(2014)의 연구에 의하면 자녀의 수가 적을수록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박성혜(1991)와 박정연(2009)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부모가 애정적으로 양육한다고 보고하였다. 유아의 출생순위에 따라 양육태도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김지윤, 2004; 김춘희, 2002; 류효정, 2015)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박정연, 2009; 배문주, 2005)도 보고되었다.

최근 들어 급격하게 사회가 변화되면서 가족 구조는 대가족에서 핵가족화 되었고, 교육의 증가 및 여성의 사회 진출로 맞벌이 가족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가족 구조의 변화는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바뀌게 하였다. 전통적 사회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어머니를 보완하는 입장으로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로 인해 자녀들이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였으나(신지은, 2014), 시대의 변화로 자녀 양육, 가사 영역이 여성만의 역할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이 전환되었다(이미경, 2012). 이에 따라 점차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가 증가하였으며, 아버지들은 자녀 양육에 책임감을 느끼고, 아버지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TV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통해 주양육자로서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녀 양육을 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아버지의 수도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 조사(2016)에 의하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남성 휴직자는 아직은 소수이지만,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총 4천872명으로 2014년보다 42.4% 급증하였고, 남성 육아휴직자의 수는 2013년 1천790명, 2014년 3천421명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체 육아휴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2.4%에서 2013년 3.3%, 2014년 4.5%, 2015년 5.6%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가정 내 아버지의 역할이 변화하고, 양육참여가 증가하면서 아버지의 양육 역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신지은, 2014).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자녀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이주리, 2011), 자녀의 사회도덕성을 증진시킨다(정금자 · 박미라, 2013). 또한 유승은(2007)의 연구에 의하면 아버지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대인문제 해결력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박광균(2000)의 연구에 의하면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 때 자녀의 공격적 성향이 적게 나타나고, 아버지가 권위적일 때는 자녀가 비협조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화 된 가족 구조의 변화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증가되는 현상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각 가정에 자녀가 1명인 초저출산시대에도래한 요즘, 자녀를 돌봄으로써 발생하는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렇지만 대가족사회에서는 자녀 양육, 부모 역할 등에

대한 간접 경험을 윗세대를 통해 자연스럽게 해 온 반면, 핵가족화 사회에서는 이러한 기회를 접하기 어렵고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양육스트레스를 더 크게 느끼게 되었으며(신지은, 2014), 대가족사회에서는 다수의 가족 구성원이 함께 생활하므로 자녀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었으나 핵가족에서는 양육지원이 어려워 양육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서주현, 김진경, 2012). 또한 부모들은 넘쳐나는 양육에 관한 지식과 정보로 양육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에 혼란을 갖게 되고, 자신감을 상실하기도 한다(조선희, 2012).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의 특성, 부모의 연령, 가정 환경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강민정, 2014), 자녀의 연령, 성별, 기질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배수진(2009)과 정안나(2007)의 연구에서는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의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지은(2014)과 엄지원(2011)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기질이 까다로울수록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스트레스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배수진, 2009; 신숙재, 1997; 엄선희, 1999; 홍희란, 2002), 자녀의 출생순위 및 자녀 수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김지윤, 2004; 김춘자, 2009)도 보고되어 자녀의 특성 및 여러 상황적 요인들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 대부분이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취업모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취업모인 전업주부가 느끼는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은 취업모에 비해 부족하다. 그러나 전업주부들은 하루 종일 육아에 전념하면서, 기본적인 집안일을 비롯한 다양한 역할 수행을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업주부들이 겪는 양육의 어려움도 많을 것이라 예상

되어지므로(박선미, 2015),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전업주부가 느끼는 양육스트레스를 모두 포함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녀양육에 대한 권한이나 주된 책임을 어머니의 역할로 여기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하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점차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증가하게 되면서, 자녀의 문제는 부모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이 전환되었고 아버지들은 직장 일로 인한 스트레스와 아버지의 부모 역할에서 오는 자녀 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두려움으로 인한 양육스트레스를 동시에 느끼게 되었다. 선미정(1995)에 의하면 아버지들이 자녀 양육으로 상당한 양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배수진(2009)은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면서 아버지들도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겪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증가됨으로 인해 항상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Baruch와 Barnett(1986)의 연구에 의하면 자녀양육 참여도가 높은 아버지들은 자녀와의 관계가 향상되며, 스스로를 유능한 부모라고 인식하고 자신감과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강민정, 2014, 재인용).

그 동안 자녀 양육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부모의 역할이 달라지게 되었고, 이제는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어머니에게만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아버지가 느끼는 양육스트레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는 영유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여러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양육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기에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양육태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김미정, 2010). 고희진(2005)의 연구와 이정순(2003)의 연구에서 부모가 양육과정 중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통제력을 잃게 되어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민정(2014)은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애정적, 자율적인 양육태도가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자녀 양육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 중 부모-자녀 관계에 객관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자녀 관련 변인(자녀의 수, 성별, 연령)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 부모들은 의식, 무의식적으로 출생순위에 따라 자녀를 다르게 키우게 되므로 한 가정에서 양육되는 자녀들을 출생순위로 구분하여 같은 양육 환경에서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며, 두 자녀 이상인 경우 첫째와 둘째의 연령차이, 첫째와 둘째의 관계(형제, 자매, 남매)도 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될 수 있기에 자녀 관련 변인에 포함하였다.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양육스트레스를 이해하고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부모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올바른 자녀 양육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 목적에 따라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 관련 변인(자녀의 수, 성별,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1-1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1-2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1-3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 관련 변인(자녀의 수, 성별,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2-1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2-2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2-3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3. 용어의 정의

1) 양육태도

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주양육자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자녀를 기르고 가르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와 행동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Schaefer(1959)의 양육태도의 하위영역인 부모의 자율적, 통제적, 애정적, 거부적 양육태도로 구분하였다.

2) 양육스트레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특성이나 부모 자신의 특성으로 인하여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며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이거나 누적적,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자녀의 행동에 대한 경험이나 요구로 인한 스트레스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로 구분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양육태도

1) 양육태도의 개념과 유형

(1) 양육태도의 개념

인간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정에서 사회적 관계를 갖게 되며,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의 보호 아래 성장하고 자라게 된다. 출생 후 접하게 되는 가정환경,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장 발달 및 정서 발달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강민정, 2014). 또한 영유아기는 생애 발달의 결정적 시기로서 이 시기에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 등 전인적 발달을 이루게 되고, 부모의 양육태도는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이가경, 2015).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Becker(1964)는 양육태도를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할 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나 태도라고 정의하고, 자녀의 성격, 행동 및 인지, 정서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Fishbein(1975)은 양육태도는 하나의 문화양식으로서 부모가 자녀를 기르고 가르치는 양육 방식이며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Atwater(1992)는 양육태도를 부모들이 자녀를 사회화시키는 과정이라 정의하며, 애정을 주고,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이가경, 2015 재인용).

양육태도에 대한 개념은 국내 연구에서도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이원영(1983)은 양육태도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나타내는 일반적 태도라고 정의하고, 양육태도는 자녀의 인지적, 정서적,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와 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이완재(2006)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부모의 행동을 양육태도라고 정의하며,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가치관 및 신념을 반영한다고 하였다. 이현지(2010)는 양육태도를 부모의 개인, 사회, 문화적 신념 및 가치관이 반영된 것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나 태도 및 표현방식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양육태도는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을 의미하며, 영유아가 성장하여 성인이 되기까지 발달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양육태도에는 부모의 가치관과 신념이 반영되어 있으며 가정의 사회, 경제적 수준, 부모와 자녀의 개인적 · 환경적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다.

(2) 양육태도의 유형

부모의 양육태도의 유형은 보는 관점이나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양육태도를 이론화하여 유형화한 초기 학자는 Symonds(1949)이다. Symonds(1949)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거부, 지배-복종의 두 차원으로 분류하였으며, 바람직한 양육태도는 거부, 지배, 과보호, 복종적인 양육태도가 아닌 중간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Symonds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두 개의 차원으로 체계화했다는 점에서는 공헌이 인정되어지나, 정신분석학 이론에 입각한 임상사례에 의해 설명되어진 것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 측면에서 파악되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엄정애, 2009). 이후 Schaefer(1959)는

Symonds(1949)와는 달리 정상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연구하여 Symonds와는 다른 양육태도 유형을 제시하였다. Schaefer는 영아기부터 초기 청년에 이르기까지의 발달과 부모의 양육태도를 연구하였고, 정상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거부적 태도와 자율-통제적 태도의 두 축으로 분류하였다. Schaefer의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박정연, 2009 재인용).

Schaefer가 제시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중 첫 번째는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태도이다.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태도는 가장 바람직한 부모의 양육태도이며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자녀의 행동에 자율성을 인정하는 태도이다. 애정적 태도, 자율적 태도의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자주적, 민주적, 수용적, 협동적인 태도를 갖는다.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태도를 갖는 부모는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여기며 자유를 주되 방임하지 않고,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도와준다.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지닌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능동적, 독립적이고, 사교적이며, 외향적이고 창의적인 태도를 갖는다.

Schaefer가 제시한 부모의 양육태도 두 번째 유형은 애정적이고 통제적인 태도이다. 애정적이고 통제적인 태도는 부모가 애정을 주면서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 유형으로 자녀에 대해 과보호, 소유적인 태도를 갖는다. 애정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태도는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여 자녀가 독립적인 행동을 할 때 좌절감을 느끼며, 새로운 반응 습득 기회를 제한한다. 따라서 애정적이고 통제적인 태도의 부모에게서 자란 자녀는 의존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을 보이고, 불안정한 정서를 지니게 된다.

Schaefer가 제시한 부모의 양육태도 세 번째 유형은 거부적이고 자율적인 태도이다. 거부적이고 자율적인 태도는 자녀를 수용하지 않으며 마음대로 행동하게 하는 유형으로 자녀에게 무관심하며 거리감을 두고 냉담한 태

도를 보인다. 거부적이고 자율적인 태도를 지닌 부모에게서 양육된 자녀들은 공격적이고 반항적인 행동을 보이며,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자신감이 없는 태도를 갖게 된다.

Schaefer가 제시한 부모의 양육태도 네 번째 유형은 거부적이고 통제적 양육태도이다.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을 주지 않으며, 신체언어, 심리적 체벌 또는 통제를 하는 태도로 정서적으로 미성숙하며 불안정한 부모들이 보이는 양육태도이다.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지닌 부모는 자녀를 수용하지 않으며, 자녀의 행동 기준을 제시해주거나 지도하지 않고, 자녀들이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두는 경우가 많으며, 자녀들은 공격적, 적대적이며 자아에 대한 분노를 갖게 되고, 내면화된 갈등과 고통을 겪게 된다.

Becker(1964)는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을 Schaefer(1959)의 양육태도 유형에 한 가지 차원을 더하여 온정-적대, 허용-제한, 지나친 관심-차분한 방관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고, Baumrind(1971)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제, 의사소통의 명료성, 성숙에의 요구, 온정의 네 가지 차원을 조합하여 독재적, 허용적, 권위적 태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엄정애, 2009). 이외에도 Hurlock(1983)은 양육태도 유형을 지배(domination), 거부(rejection), 허용(acceptance), 관대(indulgence), 포부(parental ambition), 복종(submission), 편애(favoritism)의 태도로 분류하였고, Maccoby와 Martin(1983)은 Schaefer와 Baumrind가 제시한 유형을 종합하여 부모 역할의 유형을 네 가지 차원인 수용적 태도, 독재적 태도, 허용적 태도, 방임적 태도로 분류하였다(이가경, 2015 재인용).

국내에서 이루어진 양육태도 유형에 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한종혜(1980)는 양육태도를 애정·수용, 적대·거부, 민주·자율, 권위·통제로 분류하였고, 정원식(1981)은 성취-비성취, 개방-폐쇄, 친애-거부, 자율-타율의 요인

으로 분류하였다. 오성심과 이종승(1982)은 Schaefer의 이론을 근거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을 애정-적대, 자율-통제 두 개의 차원과 정원식(1981)의 이론인 성취-비성취, Hebb와 Bernstein의 이론 중 합리-비합리의 두 개 차원으로 분류하였다(변수연, 2010 재인용). 또한 이원영(1983)은 Schaefer의 양육태도 유형에 근거하여 애정적, 거부적, 자율적, 통제적 태도로 분류하였다. 애정적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적인 동시에 수용적이며, 아동을 이해하는 아동중심적인 태도를 보이며 칭찬을 적절히 하며 체벌을 하지 않는 양육태도이다. 거부적 양육태도는 자녀를 애정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며, 무시하고 행동을 체벌하는 양육태도로 자녀의 감정표현을 허용하지 않고, 아동을 큰 부담으로 여기며 애정적 태도와는 반대 개념의 양육태도라고 할 수 있다. 자율적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규제를 하지 않고, 자녀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하며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통제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 많은 규율을 제시하고 엄격하게 지키도록 한다. 자녀는 부모에게 적대감을 느끼게 되고, 자아에 대한 분노를 갖게 된다.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대해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자에 따라 양육태도 유형은 다르게 분류될 수 있다. 학자마다 양육태도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분류한 유형은 다르지만 생애 초기인 영유아기에 양육환경이 중요하며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발달과정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수용적, 자율적인 경우 자녀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되고, 민주적, 능동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며, 극단적으로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태도로 무관심, 지배, 처벌 하게 되면 자녀는 공격적이고 분노감을 갖게 되어 긍정적 발달을 이루지 못한다고 보고되었다.

2)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의 성장과정 및 부모의 성격, 여러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복합적으로 구성된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연령 및 교육수준과 자녀의 성별 및 연령으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접하고 경험하게 되는 환경으로 가정 환경의 사회적, 경제적 배경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김석현, 2006).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Havighurst(1962)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사회계층에 따라 다를 것을 상, 하류층으로 나누어 비교한 연구에서 상류층 부모는 자녀를 긍정적 태도로 세심하게 양육하며, 하류층 부모는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정성들여 양육할 시간 및 경제적 여유가 없어 자녀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 또, Brown(1979)는 노동 계층의 어머니는 체벌, 고함, 협박, 명령 등 구속적인 태도로 양육하는 반면, 중류층 이상의 어머니들은 허용적인 태도로 자녀를 양육한다고 하였다(배문주, 2005 재인용).

그러나, 최근에는 위와 같이 사회적 계층을 나누어 비교하는 연구는 거의 사라졌으며, 경제적 지위인 가정의 소득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박미옥(1993)은 가정의 월수입이 높을 때 덜 통제적인 양육태도가 나타나 가정의 월수입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고, 최혜정(2016)은 아버지의

월수입이 많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부모의 소득에 따른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결과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긍정적이고 덜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처럼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의 소득과 같은 경제적 요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2) 부모의 연령 및 교육수준

부모의 연령에 따른 양육태도의 차이는 부모가 성장해 온 시대적 환경, 문화 양식등으로 인한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 교육관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배문주, 2005).

부모의 연령에 따른 양육태도의 차이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강신임(1991)은 어머니의 연령이 40세 이하인 젊은 부모일수록 자율적인 아동중심적 교육관을 나타낸다고 하였고, 성정자(1992)는 아버지의 연령이 많을수록 통제적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 최혜정(2016)은 아버지의 연령이 낮을수록 통제적 양육태도를 적게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와 반대되는 결과로 변수연(2010)은 연령이 많은 어머니일수록 자율적 양육태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여 부모의 연령에 따른 양육태도의 차이에 대한 일관성있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지 않았다.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결과를 보면, 이원영(1983)은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자율적 태도를 많이 보이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거부, 통제가 심하고 자녀를 과보호한다고 하였다. 또한 최혜정(2016)은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많이 보인다고 하였다. 또 학력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자율적 양육태도가 높다는

변수연(2010)의 연구결과에서도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일수록 유아의 호기심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으며, 교육수준이 낮은 부모는 유아의 호기심보다는 복종, 정직, 청결과 같은 즉각적인 반응에 더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의 교육수준이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배문주, 2005). 그러나 부모의 학력이 양육태도와 상관없다는 연구(이영숙, 2001)도 있어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부모의 연령과 교육수준은 부모의 교육관,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으며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지만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아 부모의 연령과 교육수준 하나만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결정할 수 없겠다.

(3) 자녀의 연령 및 성별

발달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영유아기에는 발달 단계에 따른 부모의 역할이 요구된다. 영아기에는 부모의 보호와 돌봄이 많이 필요한 시기로 생존 보장,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주는 부모의 역할이 요구되며 유아기에는 기본 생활 습관을 습득하고, 자율성이 형성되는 시기로 유아기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다양한 환경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이처럼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부모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자녀의 연령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의 차이도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주연진, 2013). 또 자녀의 성별 역시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기대와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남아, 여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다(배문주, 2005).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의 차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박정연(2009)은 유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유아가 어릴수록 더 애정적으로 양육한다는 박성혜(199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 변수연(2010)의 연구결과에서는 자녀가 만 5세 이상인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다른 연령의 어머니보다 통제적이라는 것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유아의 연령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김춘희, 2002; 류효정, 2015; 배문주, 2005)도 있어.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의 차이에 대한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의 차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성별과 상관없다는 연구 결과(김춘희, 2002; 류효정, 2015; 변수연, 2010)와 부모의 양육태도가 영아의 성별과 상관없다는 연구 결과(이미경, 2012)가 있다. 이는 여러 사회 문화적 변화로 전통적 남아선호사상이 약화되고 남녀에게 균등한 양육태도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며, 특히 영아의 경우에는 발달단계상 남아, 여아에게 각각 다른 성유형화된 양육태도가 아닌 기본적인 양육이 요구되는 시기로 성별에 따른 양육태도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을 것이라 예측된다(이미경, 2012). 그러나 부모는 여아보다 남아에게 거부적 양육태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박정연, 2009)도 있어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차이에 대한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

여러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나, 같은 변인이라도 연구에 따라 그 결과가 일관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즉, 어느 한 변인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반드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으며, 부모의 양육태도는 다양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다고 예측할 수 있겠다.

2.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1) 양육스트레스의 개념

인간은 생활 속에서 다양한 경험과 많은 일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스트레스는 삶에 일부분이라고 할 만큼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스트레스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받는 외부의 어려운 자극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반응을 말하며, 스트레스(stress)의 어원은 ‘무엇을 조이다’란 뜻을 가진 라틴어 ‘stringo’에서 유래된 것으로, 고난, 역경, 고통 등을 의미한다

각 개인은 가정, 사회, 직장, 학교 등에서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김성자, 2014). 스트레스는 개인에 따라 반응 차이가 있고,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는 개인의 대처 능력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가 없는 삶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스트레스는 꼭 부정적인 것은 아니며, 적당한 스트레스는 긴장감을 갖게 하고, 일을 하고자 하는 성취 욕구를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하지만 지나친 스트레스는 일의 능률을 떨어뜨리고, 신체적·심리적 장애를 불러오므로 적당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 내에서 부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주로 자녀 양육과 연관되어 나타난다(신지은, 2014). 자녀 양육은 부모에게 심리적 사회적 안정감을 주고, 부부간 관계의 주요 매개가 되기도 하며, 즐거움과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부모역할을 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정신적인 부담감, 불규칙한 수면, 양육비 지출의 증가 등으로 부모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Abidin(1992)은 부모 역할 수행 과정 중 일상적으로 지각하는 스트레스를 양육스트레스라고 개념화하였고(강민정, 2014, 재인용), 이정순(2003)은

양육스트레스를 부모 역할 수행 과정 중 부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로, 일시적, 순간적인 근심, 걱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일상적 스트레스라고 하였다. 김기현과 강희경(1997)은 양육스트레스를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영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가 자녀 양육으로 인해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이라고 개념화하였다. 강희경(1998)에 의하면 일상적 스트레스는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경험하는 성급함, 신경질, 좌절감, 당황감 등의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부모 양육스트레스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이며, Kanner(1991)는 일상적 스트레스는 여러 개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나타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단순한 생활 사건보다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박경미, 2014 재인용). 또 경쟁 사회에서 지나친 교육열로 인한 부모의 역할 증대로 가중된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이윤선, 2008)과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경험하게 되는 부모 효능감의 결여, 다른 역할 수행에서 오는 스트레스 및 남편과의 갈등, 사회적인 지원 부족, 우울감 등을 의미하는 디스트레스도 양육 스트레스를 구성하는 요인이 된다(박경미, 2014). 김혜성(2001)은 자녀와의 격리 및 양육을 타인에게 맡기게 됨으로써 느끼게 되는 심리적 불안감, 미안함과 타인양육에서 오는 불만족을 의미하는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 또한 양육스트레스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현대사회에는 주 양육자가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거나 양육환경의 변화로 부모의 양육 역할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자녀양육을 전적으로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여기는 사고가 존재하는 한 자녀를 타인에게 맡기고 직장에 나가는 맞벌이 부모들이 겪는 심리적 불안감 및 미안함은 가중될 것이다(김성자, 2014).

위의 개념을 종합해보면 양육스트레스란 부모가 자녀 양육과정에서 부모

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로 자녀를 양육할 때 느끼는 심리적 불안감, 부담감 등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일시적,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발생된다.

2) 양육스트레스의 요인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Abidin, 1990; Beelsky, 1984)에 의하면 양육스트레스는 여러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김성자, 2014 재인용).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부모의 특성과 자녀의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배수진, 2009). 부모의 특성을 부모의 연령, 교육수준, 가정의 소득수준으로, 자녀의 특성을 자녀의 성별, 연령, 출생순위, 자녀의 수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특성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부모의 연령과 교육수준, 가정의 소득수준을 중심으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의 연령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 부모의 연령과 양육스트레스가 관계가 없다는 연구(강민정, 2014; 고성혜, 1994; 김춘희, 2002; 이미경, 2012; 최혜정, 2016; 표윤경, 2012)가 보고되었으며, 부모의 연령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도 있다. 이안나,신효식,우희정(1991)은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0대주부보다 20대주부의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경

힘 부족에 따른 가정 운영의 미숙등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Field, Widmayer, Stringer와 Ignatoff(1980) 역시 젊은 어머니일수록 자녀에게 비현실적 기대를 하고, 자녀양육에 부정적 태도를 갖게 되어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다고 하였다(배수진, 2009 재인용). 반면 이해옥(2003)은 아버지의 연령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여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부모의 교육수준과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백영숙(2007)은 대졸이상의 부모에게서 일상적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고 김정과 이지현(2010), 이정숙과 두정일(2008)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교육의 기대수준이 높고 양육지식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반면 교육수준이 고학력일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고, 역할수행에 부담을 덜 느낀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배수진, 2009; 최혜정, 2016)도 있어 일관된 결과가 보고되지 않았다.

가정의 경제적 소득수준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한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월수입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고 보고하였으며(최혜정, 2016), 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정문자, 이미리, 2000). 그러나 강민정(2014), 표윤경(2012)의 연구에서는 월수입 즉 소득수준이 양육스트레스에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밖에 배우자와의 관계, 양육 지원 정도, 건강 등 부모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들도 있다. 부모의 특성은 부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양육스트레스를 겪는 대상인 부모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아 어느 한 변인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줄 것이라 예측할 수 있겠다.

(2) 자녀의 특성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녀의 연령과 성별, 출생순위, 기질을 중심으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를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자녀의 성별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남아를 자녀로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다는 결과와 여아를 자녀로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다는 결과로 일관된 결과가 보고되지 않았다. 만 3~5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표윤경, 2012)를 보면 남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영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본 강희경(1998), 민은홍(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반면에 배수진(2009)의 연구에서는 여아를 가진 아버지의 스트레스가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성별과 다른 성별의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가 느끼는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설명되어진다.

다음으로 자녀의 연령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자녀의 연령은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와 연령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로 일관된 결과가 보고되지 않았다. 자녀의 연령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를 살펴보면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부모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양육스트레스가 높다는 연구(김기현, 1997; 홍정아, 2010)와 영아에서 유아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율성이 증대되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많아진다는 연구(엄지원, 2011)가 있다. 또한 홍희란(2000)은 자녀의 연령이 높아지면 부모들이 자녀에 대

한 기대를 많이 하게 되므로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영아기에는 신체, 정서 발달 등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강희경, 1998; 민은홍, 2008; 표윤경, 2012)도 보고되고 있다.

자녀의 출생순위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출생순위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연구(양미선, 2000)를 살펴보면 첫 자녀를 출산한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첫 자녀를 출산한 어머니는 자녀양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의 부족으로 어머니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자녀의 행동 발달에 대한 이해와 심리적 요구가 높아지게 되어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강민정, 2014). 그러나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민은홍, 2008)도 있어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자녀 수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에 관한 연구 역시 일관된 결과가 보고되지 않았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자녀에게 쓰이는 비용이 많아지는 등 부모의 경제적, 심리적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진다고(김지윤, 2004; 김춘자, 2009)는 연구가 보고되었고 반면 자녀수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가 없다는 표윤경(2012)의 연구결과도 있다.

자녀의 기질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대부분 자녀의 기질이 까다로울수록 스트레스가 많다는 연구가 대부분으로(이미경, 2012), 고성혜(1994)는 아동이 소란스런 행동을 하거나 공격적 행동을 할 경우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다고 하였다.

자녀의 특성은 자녀 양육 과정에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에 틀림없지만 선행연구 결과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한 가지 요소가 아닌 여러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부모가 느끼는

양육스트레스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3. 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의 관계

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는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영유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는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양육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고,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김미정, 2010).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Abidin(1992)은 양육스트레스는 부모 자신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양육자로서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양육태도가 나타나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보이게 된다고 하였고(조선화, 2015 재인용). 이정순(2005)과 고혜진(2001)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중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순간적으로 통제력을 잃고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보이게 되며 자녀와의 감정 충돌 후 느끼게 되는 죄책감은 양육스트레스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강민정(2014)은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애정적, 자율적인 양육태도가 나타나고, 자녀의 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Howze와 Kotch(1984)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게 되고 더 나아가 사회적 문제인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신지은, 2014 재인용) 양육스트레스의 영향을 주는 요인 및 그에 따른 연구는 중요하다. 김미희(2000)의 연구결과에서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학대간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으며, 어머니가 자녀양육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면 아동학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양육태도를 이해하는데 주요한 요소로 보여진다. 반면 부모의 양육태도는 양육스트레스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이미경, 2012)도 있다. 이는 위의 연구 결과와는 다른 결과로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부모의 양육태도 외에 부모의 가치관, 신념 등 다른 요인이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1세~ 만 5세 자녀를 둔 학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각각 아버지 250부, 어머니 2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408부 중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되었거나 부모의 설문지 중 하나만 회수되어 분석이 부적합한 자료 64부를 제외한 344부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대상 부모들의 연령, 직업, 학력 등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표 1> 부모의 일반적 배경 (N=344)

구분		n	%
부모 구분	아버지	172	50.0
	어머니	172	50.0
연령	30세 이하	2	1.2
	31~35세	49	28.5
	36~40세	72	41.9
	41세 이상	49	28.5
아버지 학력	고졸이하	58	33.7
	전문대졸	33	19.2
	대졸이상	81	47.1
직업	전문직	48	27.9
	사무직	46	26.7
	자영업, 서비스직	52	30.2
	기타	26	15.1
소계		172	100.0

어머니	연령	30세 이하	15	8.7
		31~35세	77	44.8
		36~40세	58	33.7
		41세 이상	22	12.8
	학력	고졸이하	64	37.2
		전문대졸	51	29.7
		대졸이상	57	33.1
	직업	전문직	28	16.3
		사무직	25	14.5
		자영업, 서비스직	10	5.8
		전업주부	92	53.5
		기타	17	9.9
	맞벌이여부	취업모	80	46.5
		전업주부	92	53.5
	소계		172	100.0

연구대상 부모들의 자녀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자녀 수가 1명인 부모의 경우는 100명 29.1%, 자녀 수가 2명인 부모는 200명 58.1%,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부모는 44명 12.6%로 나타났다. 자녀의 성별은 첫째의 성별, 둘째의 성별로 분류하였고, 자녀의 연령도 첫째의 연령, 둘째의 연령으로 각각 분류하였다.

<표 2> 자녀의 일반적 특성

(N=344)

구 분		n	%
자녀수	1명	100	29.1
	2명	200	58.1
	3명 이상	44	12.8
성별	남자	174	50.6
	여자	170	49.4
첫째	만 1세 이하	82	23.8
	만 2세	82	23.8
	만 3세	44	12.8
	만 4세	56	16.3
	만 5세 이상	80	23.3
성별	남자	128	52.5
	여자	116	47.5
	소계	244	100.0
둘째	만 1세 이하	142	58.2
	만 2세	52	21.3
	만 3세 이상	50	20.5
	소계	244	100.0
성별	남자	22	50.0
	여자	22	50.0
	소계	44	100.0
셋째	만 1세 이하	24	54.5
	만 2세	12	27.3
	만 3세 이상	8	18.2
	소계	44	100.0
첫째와 둘째의 연령 차이	1년 이하	22	9.0
	2년	102	41.8
	3년	60	24.6
	4년 이상	60	24.6
	소계	244	100.0
첫째와 둘째와의 관계	형제	72	20.9
	자매	60	17.4
	남매	112	32.6
	외동	100	29.1

2. 연구도구

1)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 질문지는 아버지용 질문지와 어머니용 질문지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Schaefer(1959)의 MBRI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를 이원영(1983)이 번안하고 배문주(2005)가 수정, 보완한 양육태도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 거부적, 자율적, 통제적 태도로 분류하였고, 각각 12문항씩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질문지 문항의 내용은 모두 같으나, 응답 과정상에 부모들이 서로의 응답 내용에 대한 일치여부를 확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각 문항의 순서가 다르게 배열되어있다.

질문지의 문항은 5단계 평정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내용은 '거의 항상 그렇다', '그런 편이다', '가끔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거의 항상 그렇다'에 5점, '그런 편이다'에 4점, '가끔 그렇다'에 3점, '거의 그렇지 않다'에 2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이 부여된다.

양육태도의 하위 요인을 살펴보면, 애정적 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온정과 사랑으로 관심있게 돌보며 수용하는 태도를 의미하고 '자녀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는 편입니까', '자녀에게 애정표현을 곁으로 잘하십니까'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거부적 태도는 자녀에게 관심이 부족하거나 증오의 감정을 가지고 자녀를 짐스럽게 여기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의미하고 '자녀의 요구를 무시하는 편입니까', '자녀가 잘못했을 경우 일부러 쌀쌀맞게 대하고 따끔하게 이야기 하시는 편입니까'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자율적

태도는 자녀의 독립심을 인정하고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여 원하는 행동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의미하며 ‘자녀가 할 수 있다면 비록 힘든 일이라도 혼자서 하도록 하십니까’, ‘자녀가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자유를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통제적 태도는 자녀의 행동을 통제, 명령, 간섭하고 엄한 규율에 맞추어 행동을 강요하는 태도를 의미하며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규칙과 규율을 많이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관한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69~.82의 분포를 나타내고,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관한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66~.82로 모두 .6 이상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태도 질문지와 아버지의 양육태도 질문지의 하위요인 및 문항번호와 사용된 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표 3과 같다.

<표 3> 부모의 양육태도 질문지의 하위요인 및 문항번호와 신뢰도 계수

구분	하위요인	문항번호	Cronbach's α
어머니의 양육태도	애정적 태도	1,5,7,23,24,25,26,27,28,35,36,37	.82
	거부적 태도	3,4,14,16,17,19,29,30,31,32,33,34	.75
	자율적 태도	2,6,11,12,13,15,38,39,40,41,42,43	.69
	통제적 태도	8,9,10,18,20,21,22,44,45,46,47,48	.69
아버지의 양육태도	애정적 태도	3,4,14,16,17,19,29,30,31,32,33,34	.82
	거부적 태도	2,6,11,12,13,15,38,39,40,41,42,43	.76
	자율적 태도	8,9,10,18,20,21,22,44,45,46,47,48	.66
	통제적 태도	1,5,7,23,24,25,26,27,28,35,36,37	.71

2)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우리 문화에 맞도록 문항을 구성한 김기현과 강기현(1997)의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한 박경미(2014)의 연구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요인 10문항,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요인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기존 도구에 포함되어 있는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에 해당하는 문항은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에게 적용하는데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시켰다. 각 문항은 5단계 평정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에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거의 그렇지 않다’는 2점, ‘그런 편이다’는 3점, ‘가끔 그렇다’는 4점, ‘항상 그렇다’는 5점의 점수를 부여한다. 각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질문지 하위요인 및 문항 번호와 사용한 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표 4와 같다.

<표 4>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하위요인 및 문항 번호와 신뢰도 계수

구분	하 위 요 인	문항 번호	Cronbach's α
어머니	일상적 양육스트레스	1~10	.85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11~20	.80
아버지	일상적 양육스트레스	1~10	.84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11~20	.79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일상적 양육스트레스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수면시간의 부족, 집안일 등 육체적으로 힘들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의미하고 ‘아이를 돌보는 것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아이를 돌보느라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와 같은 문항들로 구성되어있다.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는 자녀양육으로 부부관계 문제 발생, 부모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부담감 등으로 생활이 즐겁지 않게 되는 스트레스를 의미하고 ‘아이를 낳은 후 나의 생활이 예전만큼 즐겁지가 않다’,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와 같은 문항들로 구성되어있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80~.85로,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79~.84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1) 예비연구

본 연구를 실시하기 전에 연구도구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의 대상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어머니와 아버지 각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질문지를 살펴보며 질문지 문항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 문맥의 흐름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고 예비연구 후 부모의 양육태도의 하위변인의 내용 중 양육태도와 관련성이 없는 문항 및 의미 전달이 어렵거나 분명하지 않은 질문을 수정·보완하였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검사도구는 예비연구 결과

부모들이 응답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수정 없이 사용하였다.

2) 본 연구

본 연구는 2014년 11월 3일부터 12월 19일에 서울, 경기도에 소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만 1세~ 만 5세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 아버지 각 250명씩 총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를 위해 연구자가 직접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전달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곳은 전화로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협조를 구한 뒤 우편을 통하여 질문지를 전달하였다. 어머니 양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 질문지, 아버지 양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 질문지를 한 셋트로 묶어 연구 대상 영유아의 가정으로 배부하고 다시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408부 중 중 응답이 불분명하거나 부모의 설문지 중 한 부만 회수되어 분석이 어려운 64부를 제외하고 344부의 설문지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자녀 관련 변인(자녀의 수, 성별, 연령)에 따른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정, One-way ANOVA 분

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자녀 관련 변인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자녀 관련 변인 중 자녀 수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자녀 성별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녀 연령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는 연령 차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의 연령 차이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첫째 자녀의 연령

첫째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차이는 표 5와 같다.

첫째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는 애정적 양육태도에서 만 1세 이하가 3.95, 만 2세 3.90, 만 3세 3.83, 만 4세 3.90, 만 5세 이상이 3.74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47, p<.05$). 즉, 첫째 자녀의 연령이 만 5세 이상인 부모의 경우 다른 연령의 부모들보다 애정적 양육태도가 낮았다.

어머니와 아버지로 각각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첫째 자녀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애정적 양육태도에서 만 1세 이하가 4.14, 만 2세 4.01, 만 3세 3.96, 만 4세 3.96, 만 5세 이상이 3.83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3.03, p<.05$). 즉, 첫째 자녀의 연령이 만 5세 이상인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다른 연령의 부모에 비해 애정적 양육태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첫째 자녀의 연령에 따른 아

버지의 양육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5> 첫째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의 차이 (N=344)

구분	만 1세 이하(a)		만 2세(b)		만 3세(c)		만 4세(d)		만 5세 이상(e)		F	Scheffe
	M	SD	M	SD	M	SD	M	SD	M	SD		
	부 모											
애정적 양육 태도	3.95	.41	3.90	.46	3.83	.48	3.90	.46	3.74	.50	2.47*	a,b,c,d> e
거부적 양육 태도	2.46	.39	2.42	.41	2.50	.48	2.35	.48	2.52	.41	1.50	
자율적 양육 태도	3.50	.40	3.46	.35	3.54	.30	3.58	.44	3.53	.38	.87	
통제적 양육 태도	3.22	.46	3.20	.44	3.40	.47	3.20	.47	3.35	.50	2.33	
어 머 니												
애정적 양육 태도	4.14	.34	4.01	.43	3.96	.43	3.96	.43	3.83	.39	3.03*	a,b,c,d> e
거부적 양육 태도	2.55	.42	2.47	.42	2.58	.43	2.54	.45	2.57	.34	.39	
자율적 양육 태도	3.55	.43	3.53	.37	3.57	.28	3.53	.45	3.51	.33	.10	
통제적 양육 태도	3.31	.39	3.23	.43	3.48	.51	3.29	.43	3.48	.48	2.26	
아 버 지												
애정적 양육 태도	3.76	.38	3.80	.48	3.71	.50	3.84	.48	3.64	.59	.84	
거부적 양육 태도	2.36	.34	2.36	.40	2.42	.52	2.17	.44	2.47	.46	2.12	
자율적 양육 태도	3.45	.37	3.40	.32	3.51	.32	3.63	.43	3.56	.42	1.94	
통제적 양육 태도	3.13	.51	3.17	.46	3.32	.44	3.12	.50	3.23	.49	.71	

* $p < .05$

(2) 둘째 자녀의 연령

둘째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차이는 표 6과 같다.

<표 6> 둘째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의 차이 (N=244)

구분	만 1세 이하(a)		만2세(b)		만3세(c)		F	Scheffe	
	M	SD	M	SD	M	SD			
부 모	애정적 양육태도	3.86	.47	3.92	.33	3.67	.55	4.08*	a,b>c
	거부적 양육태도	2.46	.44	2.45	.42	2.49	.44	.08	
	자율적 양육태도	3.51	.35	3.57	.34	3.51	.46	.53	
	통제적 양육태도	3.28	.46	3.24	.48	3.34	.53	.50	
어 머 니	애정적 양육태도	4.00	.40	3.95	.28	3.82	.46	1.88	
	거부적 양육태도	2.52	.41	2.56	.42	2.56	.38	.12	
	자율적 양육태도	3.53	.34	3.57	.32	3.51	.39	.18	
	통제적 양육태도	3.34	.44	3.30	.46	3.45	.54	.66	
아 버 지	애정적 양육태도	3.72	.50	3.90	.38	3.53	.60	3.43*	a,b>c
	거부적 양육태도	2.40	.46	2.34	.40	2.41	.50	.19	
	자율적 양육태도	3.48	.35	3.58	.37	3.52	.52	.49	
	통제적 양육태도	3.22	.48	3.18	.51	3.23	.51	.06	

* $p < .05$

둘째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는 애정적 양육태도에서 만 1세 이하가 3.86, 만 2세 3.92, 만 3세 3.67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4.08, p<.05$). 즉, 둘째 자녀의 연령이 만 3세 이상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다른 연령의 둘째 자녀를 둔 부모에

비해 애정적 양육태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아버지로 각각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둘째 자녀의 연령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애정적 양육태도에서 만 1세 이하가 3.72, 만 2세 3.90, 만 3세 3.53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3.43, p<.05$). 즉, 둘째 자녀의 연령이 만 3세 이상인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다른 연령의 둘째 자녀를 둔 아버지에 비해 애정적 양육태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둘째 자녀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간의 연령 차이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간의 연령 차이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자녀들의 연령 차이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어머니와 아버지로 각각 나누어 살펴본 결과, 자녀들의 연령 차이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통제적 양육태도에서 1년 이하가 3.15, 2년은 3.33, 3년은 3.27, 4년 이상은 3.55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88, p<.05$). 즉,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의 연령 차이가 4년 이상인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태도는 다른 연령 차이의 어머니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의 연령 차이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7>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간의 연령 차이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구분	1년 이하(a)		2년(b)		3년(c)		4년 이상(d)		F	Scheffe	
	M	SD	M	SD	M	SD	M	SD			
부모	애정적 양육태도	4.05	.35	3.81	.46	3.78	.45	3.85	.53	1.91	
	거부적 양육태도	2.24	.48	2.46	.40	2.52	.45	2.49	.45	2.26	
	자율적 양육태도	3.70	.41	3.47	.36	3.51	.34	3.56	.38	2.59	
	통제적 양육태도	3.18	.40	3.24	.47	3.25	.47	3.43	.52	2.57	
어머니	애정적 양육태도	4.04	.41	3.93	.41	3.92	.37	3.98	.41	.34	
	거부적 양육태도	2.34	.55	2.58	.37	2.59	.41	2.49	.37	1.30	
	자율적 양육태도	3.75	.35	3.49	.35	3.53	.34	3.53	.34	1.70	
	통제적 양육태도	3.15	.51	3.33	.40	3.27	.47	3.55	.50	2.88*	d>a,b,c
아버지	애정적 양육태도	4.06	.30	3.69	.47	3.65	.49	3.72	.61	1.92	
	거부적 양육태도	2.14	.39	2.35	.40	2.44	.47	2.48	.52	1.75	
	자율적 양육태도	3.65	.47	3.45	.38	3.49	.36	3.58	.42	1.19	
	통제적 양육태도	3.21	.27	3.16	.52	3.22	.48	3.31	.51	.60	

* $p < .05$

2. 자녀 관련 변인에 따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자녀 관련 변인 중 자녀 수에 따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녀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녀의 성별과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녀 성별에 따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1) 첫째 자녀의 성별

첫째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차이는 표 8과 같다.

<표 8> 첫째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차이(N=344)

구분	남자		여자		t	
	M	SD	M	SD		
부모	일상적 스트레스	2.49	.63	2.67	.62	-2.62*
	부모역할 디스트레스	2.31	.58	2.49	.54	-2.91*
어머니	일상적 스트레스	2.62	.65	2.86	.58	-2.50*
	부모역할 디스트레스	2.38	.61	2.64	.48	-3.05*
아버지	일상적 스트레스	2.35	.59	2.47	.61	-1.31
	부모역할 디스트레스	2.24	.56	2.34	.56	-1.16

* $p < .05$, ** $p < .01$

첫째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일상적 스트레스에서 첫째 자녀가 남아인 경우 2.49, 여아인 경우 2.6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 = -2.62$, $p < .01$).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는 첫째 자녀가 남아인 경우 2.31, 첫째 자녀가 여아인 경우가 2.49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91$, $p < .01$).

즉, 첫째 자녀의 성별이 여아인 부모가 남아인 부모보다 일상적 양육스트레스,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자녀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일상적 양육스트레스에서 첫째 자녀가 남아인 경우 2.62, 여아인 경우 2.8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2.50, p<.05$).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는 첫째 자녀가 남아인 경우 2.38, 여아인 경우 2.6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3.05, p<.01$). 즉, 첫째 자녀의 성별이 남아인 어머니보다 여아인 어머니가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에는 첫째 자녀의 성별에 따라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둘째 자녀의 성별

둘째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의 관계

첫째와 둘째 자녀의 관계에 따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차이는 표 9와 같다.

첫째와 둘째 자녀의 관계에 따른 부모의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에서 형제는 2.29, 자매는 2.53, 남매는 2.46, 외동은 2.34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72, p<.05$). 즉, 자매와 남매의 부모는 형제와 외동의 부모보다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가 높았다.

첫째와 둘째 자녀의 관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경우에도 부

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에서 형제는 2.30, 자매는 2.69, 남매는 2.60, 외동은 2.45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3.35, p<.05$). 자매와 남매의 어머니는 형제와 외동의 어머니보다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첫째와 둘째 자녀의 관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9> 첫째와 둘째 자녀의 관계에 따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차이

구분	형제(a)		자매(b)		남매(c)		외동(d)		F	Scheffe	
	M	SD	M	SD	M	SD	M	SD			
부 모	일상적 스트레스	2.48	.64	2.68	.72	2.60	.65	2.55	.54	1.18	
	부모역할 디스트레스	2.29	.55	2.53	.56	2.46	.60	2.34	.54	2.72*	b,c>a,d
어 머 니	일상적 스트레스	2.56	.64	2.89	.62	2.80	.65	2.71	.55	1.79	
	부모역할 디스트레스	2.30	.55	2.69	.49	2.60	.59	2.45	.53	3.35*	b,c>a,d
아 버 지	일상적 스트레스	2.40	.64	2.47	.76	2.40	.60	2.39	.48	.13	
	부모역할 디스트레스	2.28	.56	2.38	.58	2.31	.58	2.22	.53	.52	

* $p<.05$

2) 자녀 연령에 따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1) 첫째 자녀의 연령

첫째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차이는 표 10과 같다.

첫째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보면 일상적 스트레스

에서 만 1세 이하가 2.75, 만 2세 2.64, 만 3세 2.51, 만 4세 2.37, 만 5세 이상이 2.51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3.57, p<.01$). 즉, 첫째 자녀가 만 2세 이하인 부모의 일상적 양육스트레스가 다른 연령의 자녀를 둔 부모의 일상적 양육스트레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와 아버지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첫째 자녀의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0> 첫째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차이

구분	만 1세 이하(a)		만 2세(b)		만 3세(c)		만 4세(d)		만 5세 이상(e)		F	Scheffe	
	M	SD	M	SD	M	SD	M	SD	M	SD			
부 모	일상적 스트레스	2.75	.59	2.64	.55	2.51	.68	2.37	.63	2.51	.69	3.57*	a,b>c, d,e
	부모역할 디스트레스	2.36	.58	2.48	.51	2.41	.57	2.28	.64	2.43	.56	1.11	
어 머 니	일상적 스트레스	2.92	.58	2.82	.53	2.66	.77	2.55	.66	2.65	.60	1.96	
	부모역할 디스트레스	2.46	.58	2.58	.52	2.49	.55	2.50	.68	2.51	.51	.21	
아 버 지	일상적 스트레스	2.58	.55	2.45	.51	2.35	.56	2.20	.56	2.37	.75	1.87	
	부모역할 디스트레스	3.76	.38	3.80	.48	3.71	.50	3.84	.48	3.64	.59	.84	

** $p<.01$

(2) 둘째 자녀의 연령

둘째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차이는 표 11과 같다.

둘째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보면 일상적 스트레스

에서 만 1세 이하가 2.69, 만 2세 2.50, 만 3세 이상이 2.39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4.299$, $p<.05$). 즉, 만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의 일상적 양육스트레스가 만 3세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의 일상적 양육스트레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에서는 둘째 자녀의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와 아버지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1> 둘째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차이

구분	만 1세 이하(a)		만 2세(b)		만 3세 이상(c)		F	Scheffe	
	M	SD	M	SD	M	SD			
부모	일상적 스트레스	2.69	.64	2.50	.62	2.39	.75	4.29*	a,b>c
	부모역할 디스트레스	2.42	.59	2.39	.58	2.48	.56	.29	
어머니	일상적 스트레스	2.86	.61	2.66	.65	2.54	.72	2.63	
	부모역할 디스트레스	2.53	.56	2.55	.65	2.54	.53	.01	
아버지	일상적 스트레스	2.51	.62	2.33	.55	2.24	.77	1.93	
	부모역할 디스트레스	2.31	.60	2.24	.45	2.42	.60	.67	

* $p<.05$

(3) 첫째와 둘째 자녀의 연령 차이

첫째와 둘째 자녀의 연령 차이에 따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검

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의 상관관계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12와 같다

어머니의 경우에는 애정적 양육태도는 일상적 스트레스($r=-.20, p<.01$),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r=-.45, p<.01$)와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거부적 양육태도는 일상적 스트레스($r=.51, p<.01$),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r=.61, p<.01$)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자율적 양육태도는 일상적 스트레스($r=-.24, p<.01$),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r=-.38, p<.01$)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통제적 양육태도는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r=.15, p<.01$)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에는 애정적 양육태도는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r=-.23, p<.01$)와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거부적 양육태도는 일상적 스트레스($r=.45, p<.01$),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r=.52, p<.01$)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자율적 양육태도는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r=-.16, p<.05$)와 부적 상관관계를, 통제적 양육태도는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r=.15, p<.05$)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12>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 상관관계

		애정적 양육태도	거부적 양육태도	자율적 양육태도	통제적 양육태도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역할 디스트레스
어머니	애정적 양육태도	1					
	거부적 양육태도	-.50**	1				
	자율적 양육태도	.47**	-.34**	1			
	통제적 양육태도	.12	.26**	.05	1		
	일상적 스트레스	-.20**	.51**	-.24**	.13	1	
	부모역할 디스트레스	-.45**	.61**	-.38**	.15*	.67**	1
아버지	애정적 양육태도	1					
	거부적 양육태도	-.52**	1				
	자율적 양육태도	.36**	-.20**	1			
	통제적 양육태도	.14	.28**	-.09	1		
	일상적 스트레스	-.10	.45**	-.09	-.01	1	
	부모역할 디스트레스	-.23**	.52**	-.16*	.15*	.61**	1

* $p < .05$, ** $p < .01$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에서는 자녀 양육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자녀 관련 변인(자녀의 수, 성별, 연령)에 따른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를 살펴보고자하였다.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에 차이를 살펴보고 자녀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부모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며 올바른 자녀 양육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자녀 관련 변인(자녀의 수, 성별, 연령)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수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 구분지어 살펴본 결과에서도 자녀의 수에 따라 양육태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형제 수가 세 명 이상일 때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결과를 보고한 이대경(2014)의 연구와 자녀 수가 적은 어머니일수록 애정적 태도가 높으며, 자녀가 많은 어머니일수록 자율적 양육태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보고한 변수연(2011)의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변수연(2011)에 의하면 자녀가 많으면 부모와 접촉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애정을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되며, 자녀 수가 많은 어머니는 양육경험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여유를 갖고 자녀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녀의 수와 부모의 양육태도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 자녀 수

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의 차이에 관한 연구 결과는 일치하지 않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자녀의 수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가 더 많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는 첫째 자녀의 성별, 둘째 자녀의 성별, 첫째와 둘째 자녀의 관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와 아버지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유아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을 보고한 강은희(2015), 김춘희(2002), 류효정(2015), 배문주(2005), 변수연(2010)의 연구결과와 영아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한 이미경(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핵가족화된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인해 각 가정에는 자녀의 수가 적어지게 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의 기회가 많아지는 등의 사회적 영향으로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에서 벗어나 남녀 모두에게 균등한 양육태도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셋째,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는 첫째 자녀의 연령, 둘째 자녀의 연령 그리고 첫째와 둘째 자녀의 연령 차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첫째 자녀의 경우 만 5세 이상 부모의 경우 만 1세 ~ 만 4세 자녀의 부모보다 애정적 양육태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의 경우 만 3세 이상 부모의 경우 만 2세 이하 자녀의 부모보다 애정적 양육태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의 연령이 많은 경우 애정적 양육태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연령이 어릴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라는 결과를 보고한 박정연(200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첫째와 둘째 자녀의 연령 차이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는 둘째 자녀와 4년 이상 차

이가 나는 자녀를 둔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태도가 연령 차이가 1년 ~3년인 어머니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와 둘째와의 연령차이가 크면 두 아이 모두에게 적합한 양육을 위해 통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녀 양육의 책임을 더 많이 맡고 있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를 통제해야 할 상황이 더 많기 때문에 어머니의 경우 통제적 양육태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2) 자녀 관련 변인(자녀의 수, 성별, 연령)에 따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첫째, 자녀의 수에 따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는 차이가 없었다. 또 어머니와 아버지로 구분지어 살펴본 결과 역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양육스트레스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한 김춘자(2009)의 연구 결과와 자녀 수가 하나인 어머니가 더 많은 양육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한 선미정(199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으며 자녀 수에 따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차이가 없다는 민은홍(2008)과 박경미(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자녀 수의 증가는 심리적, 재정적 부담감 등으로 인한 양육스트레스를 심화시키며, 또한 자녀 수가 하나일 경우에도 한 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와 관심으로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게 된다. 따라서 자녀 수에 따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차이가 없다고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첫째 자녀의 경우 여아인 부모가 남아인 부모보다 일상적 양육스트레스,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아는 남아에 비해 옷 입기, 머리 빗기 등 세심한 어머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아의 부모보다 여아의 부모가 양육스트레스가 높다고 한 편은숙(2004)의 연구 결

과와 일치한다. 또한 딸이 아들에 비해 신체적, 심리적으로 연약하여 상처받기 쉽다고 여겨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더 높다는 문혁준(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첫째와 둘째 자녀의 관계에 따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매 또는 남매의 부모가 형제 또는 외동의 부모보다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가 있는 자매 또는 남매 부모의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여아의 부모가 남아의 부모보다 양육스트레스가 높다고 나타난 첫째 자녀의 연구 결과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자녀 연령에 따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첫째 자녀의 경우 만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의 일상적 양육스트레스가 만 3세 이상의 부모의 일상적 양육스트레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둘째 자녀의 연령이 만 2세 이하인 부모가 만 3세 이상인 부모보다 일상적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자녀, 둘째 자녀 모두 만2세 이하의 부모에게서 일상적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자녀가 요구하는 정도에 따른 양육스트레스가 많다고 보고한 정순진(2008)의 연구결과와 연령이 어릴수록 성인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증가하여 양육스트레스가 높다고 보고한 김기현(1997)과 김정(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자녀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증가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주양육자는 어머니로서 양육에 대한 부담과 책임으로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가 더 많이 겪고 있음을 의미하며,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겠다.

3)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의 관계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경우에는 애정적 양육태도는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거부적 양육태도는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자율적 양육태도는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통제적 양육태도는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에는 애정적 양육태도는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거부적 양육태도는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자율적 양육태도는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계를, 통제적 양육태도는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양육스트레스가 많을수록 거부적 양육태도,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내며 양육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애정적 양육태도, 자율적 양육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가 양육과정 중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통제력을 잃게 되어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보이게 된다고 한 연구결과(고혜진, 2001; 이정순, 200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양육행동과 강압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한 연구결과(신숙재, 1997; 안지영, 2001)와 일치하며,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애정적, 자율적인 양육태도가 나타난다고 한 강민정(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태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부모가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자녀에게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게 되므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고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높일 수 있도록 스트레스 해결 방안에 대한 부모교육 등의 다양한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겠다.

2. 결론 및 제언

앞에서 살펴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 관련 변인(수, 성별, 연령)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에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의 수, 성별에 따른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 관련 변인(수, 성별, 연령)에 따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녀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다. 여아를 자녀로 둔 부모가 남아를 자녀로 둔 부모보다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성별과 연령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자녀의 수에 따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양육스트레스는 애정적 양육태도, 자율적 양육태도와 부적 상관관계를 거부적 양육태도는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통제적 양육태도는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스트레스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며 양육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애정적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자녀를 둔 부모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사회 인구학적 변인을 고려하여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자녀 관련 변인을 자녀의 수, 성별, 연령 등 객관화된 요소들로 제한하고 살펴보았는데, 인구학적 특성이 아닌 자녀의 기질, 성향 등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면담이나 관찰이 아닌 질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므로 응답자가 실제로 행하고 있는 양육태도와 다르게 자신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양육태도에 응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관찰이나 면접 등의 연구방법을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강민정(2014). 부모양육태도와 부모양육스트레스가 영아 정서지능 발달에 미치는 영향. 배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신임(1991). 학부모의 자녀교육관에 관한 연구: 서울시내 중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상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은희(2015). 부모의 양육태도 일치여부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력 및 기본 생활습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희경(1998).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 사무직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역할관과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성혜(1994).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 청소년 연구, 18(2), 21-37.
- 고혜진(2005).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태도의 관계에 미치는 자아탄력성의 중재효과 및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현, 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길자(2006).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숙(2016).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색채선호와 양육태도와의 관계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정(2010). 걸음마기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정(2016).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정서표현이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희(2000).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학대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우

- 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석현(2006).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에 관한 조사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자(2014). 어머니의 자녀양육스트레스 및 역할 만족도 전반에 관한 질적 연구.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희(2015).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아개념 간의 관계.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 이지현(2005).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6(5), 245-261.
- 김주현(2015). 어머니의 사회 경제적 변인, 양육태도가 영유아 수학적 가정 환경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윤(2004). 첫 아이와 둘째 아이 양육에서 부모역할과 양육태도의 차이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춘자(2009). 맞벌이가정 어머니의 생태학적 변인이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춘희(2002). 자녀양육시 부모의 스트레스. 복음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성(2001).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에 대한 사회 정서적 투자와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효정(2015). 부모의 양육신념·양육태도와 유아의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혁준(2004).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42(11), 109-112.
- 민은홍(2008).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원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광균(2000). 아버지의 자녀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경

- 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미(2014).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
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옥(1993).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민주(2014). 유아기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 따른 아버지 양육태도와 양육스
트레스 비교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미(2015). 영유아기 두 자녀 가정 어머니가 갖는 육아경험의 보람과 어
려움.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혜(2002).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 변인탐색.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소영, 문혁준(2004). 유아 스트레스의 관한 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12), 1-14.
- 박수연(2010).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관한 연
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희진, 문혁준 (2012). 어머니의 양육죄책감 및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국보
육 지원학회지, 8(2), 121-137.
- 박정연(2009).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배재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계영(2004). 맞벌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 대구 카톨릭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문주(2005).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태도 일치에 따른 유아의 정서지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수진(2009).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의

-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영숙(2007). 어머니의 자녀양육스트레스와 양육죄책감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수연(2010). 자녀 수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강미(2014).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어머니-유아간 애착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주현, 김진경(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영유아보육학, 73, 101-121.
- 선미정(1995). 취학전 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스트레스 연구. 기전여자전문대학 논문집, 15, 33-41.
- 성정자(1992).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옥련(200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행동문제.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현민(2011). 유아 관련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역할만족도와 언어통제유형의 차이 및 관계.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경중(1993). 사회계층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선혜(2013).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영향.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지은(2014).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보육비 지원여부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서

- 울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숙희(2011). 유아의 기질, 부모 양육태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지영(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엄지원(2011). 한국 영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예측변인: 사회인구학적 특성, 영아 특성,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부부관련 특성, 사회적지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미선(2000).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산후우울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승은(2007). 아버지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유아의 대안문제해결사고의 차이.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종남(2014). 어머니 양육태도와 유아의 기질, 자아존중감 및 자기 조절능력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영현, 문혁준 (2008).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논집, 28(1), 29-46.
- 이가경(2015).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 탄력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신(2014).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일치여부에 따른 교사- 영아의 애착안정성.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엄정애(2009). 유아교육개론, 서울: 양서원
- 이대경(2014). 유아기 아동의 부모 양육태도와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 울산대학교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 이랑(2003). 자녀 양육 태도 및 양육 스트레스에 따른 부모교육 요구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미경(2012). 부모간 양육태도 일치도와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안나, 신호식, 우희정(1991). 도시주부의 스트레스와 가정관리 행동유형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2), 137-153.
- 이영숙(2001). 유아부모의 학력에 따른 책임의식, 양육태도, 스트레스의 상호관계.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완재(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도덕성 발달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윤선(200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버지 양육참여도와의 관계.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숙, 두정일(2008). 유아의 적응적 기질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3(2), 1-17.
- 이정순(2003).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3(3), 5-19.
- 이주리(2011). 출산 의도 및 부·모 양육참여와 영아 발달 간 관계. 인간발달연구, 18(2), 43-57.
- 이지은(2014).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기질이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리더쉽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옥(2003). 맞벌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지(2010).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소정(2013). 유아기 자녀를 둔 일반가정과 중국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양육 태도와 양육참여에 대한 어머니 인식 비교.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인숙(2001). 자녀양육에 대한 죄책감, 격리 불안 및 양육스트레스가 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대상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계숙, 김미정, 하은실(2012). 어머니의 행복감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7(1), 73-97.
- 정금자, 박미라(2013).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사회도덕성과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80, 43-64.
- 정문자, 이미리(2000). 취업 주부의 직업 및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인구학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분석. 대한가정학회, 38(11), 115-126.
- 정순진(2008). 한국형 부모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사회정책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안나(2007). 취학 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선화(2015). 유아 부모의 자녀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태도.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하(201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연진(2013).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죄책감 관련 변인.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숙(1982). 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경(2011).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2(2), 105-121.
- 최미향(2003). 부모의 양육태도 및 부모간 양육태도 일치정도에 따른 유아의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대구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혜정(2016). 아버지의 자녀양육특성과 자녀의 또래 상호작용의 관계. 춘천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편은숙(2004). 영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어머니 역할 인식과 자녀 양육 스트레스.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표윤경(2012). 양육스트레스,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중혜(1980). 부모의 인성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인성과의 관계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정아(2010). 영아의 성별, 월령 및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효능감과 영아 발달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희란(2002).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순영(2015). 조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PSI)*. Charlottesville : Pediatric Psychology press.
- Cri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McBride, B. A(1989). Stress and father's parental competence, implications for family life and parent educator. *Family Relation*, 38, 385-389.

ABSTRACT

Parenting Attitude and Parenting Stress of Mothers and Fathers by Child-Related Variables

Lee, Mi-Hyoun
Major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parenting attitude and parenting stress of mothers and fathers by child-related variables (number of children, gender, age) and determine how parenting attitude of mothers and fathers was related to parenting stress of mothers and fathers. For this purpose, the following questions were set:

First, does parenting attitude differ by child-related variables?

Second, does parenting stress differ by child-related variables?

Third, how is parenting attitude related to parenting stress of mothers and fathers?

This study was conducted in 500 parents (250 fathers and 250 mothers) of one- to five-year-old children at kindergartens and nurserie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Of a total of 500

questionnaires distributed, 408 copies were returned; then, then, 344 copies were used in this study, with the exception of 64, which were invalid because they contained insincere responses or failed to be accompanied by the spouse's.

Bae's (2005) parenting attitude scale, which is the adaptation of Lee's (1983) translation of the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MBRI) developed by Schaefer (1959), was used to measure parenting attitude. Kim and Ghang's (1997) parenting stress scale adapted by Park (2014) to the Korean culture, taking the socio-cultural background of Korea into account, was used to measure parenting stress.

As for statistical processing of the collected data, frequency and percentage were estimated to determin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and t-test and one-way ANOVA were performed to determine parenting attitude and parenting stress of mothers and fathers by child-related variables (number of children, gender, and age).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correlation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parenting stress of mothers and fath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presented on the basis of the questions as follows:

First, as for differences in parenting attitude by child-related variables (number of children, gender, and age), parenting attitude differed by children's age. Mothers whose first child was ≥ 5 years old showed lower levels of affectionate parenting attitude than those

whose first child was in the other age groups. Fathers whose second child was ≥ 3 years old showed lower levels of affectionate parenting attitude than those whose second child was in the other age groups. Mothers whose first and second children had an age span of ≥ 4 years between them showed higher levels of controlling parenting attitud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arenting attitude by the number of children or children's gender.

Second, as for the variation in parenting stress by child-related variables (number of children, gender, age), there was variation in parenting stress by children's gender and age. Parents of girls showed higher levels of daily parenting stress, the burden from the parenting role, and distress than those of boys. As for parenting stress by relationships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children, parents of sisters or brother and sister showed higher levels of the burden from parental roles and distress than those of brothers or an only chil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arenting stress by the number of children.

Third, as for the correlation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parenting stress of mothers and fathers, parenting stress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affectionate and autonomous parenting attitude and rejective parenting attitud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daily stress, the burden from parental roles, and distress. Controlling parenting attitud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burden from parental roles and distress. Parenting attitude is closely correlated with parenting stress: greater parenting stress is more likely to result in negative parenting attitude and less parenting stress is more likely to result in affectionate, positive parenting attitude.

<부록 1>

아버지 양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 설문지

<아버지용>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자녀 관련 변인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설문지의 내용은 연구를 위하여 사용될 것이며, 본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질문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므로 평소에 느끼신 대로 답해 주시기 바라며,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최근 늘어난 맞벌이로 인하여 아버지 양육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아버지의 견해와 어머니의 견해가 모두 필요하여 본 설문지를 두 분께서 각각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귀중한 시간 내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 드립니다.

201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석사과정

연구자 : 이 미 현 올림

지도교수: 배 지 희

아버지 양육태도 및 스트레스 질문지

다음 문항들을 읽으신 후, 평소 아버지의 견해나 행동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 되는 곳에 O표를 해 주세요.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1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2	아버지께서는 자녀의 요구를 무시하는 편입니까?	1	2	3	4	5
3	아버지께서는 어린 자녀들이 놀고 있을 때 자녀들이 노는 방식으로 허물없이 함께 놀아 주십니까?	1	2	3	4	5
4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행동이 자랑스럽게 느껴지고 또 칭찬도 하시는 편입니까?	1	2	3	4	5
5	아버지께서는 자녀가 버릇없이 굴 때 벌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으신 적이 있습니까?	1	2	3	4	5
6	아버지께서는 자녀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7	자녀가 바르게 자라려면 부모를 어렵게 알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8	아버지의 도움을 거절하고 자녀 혼자 무엇을 하겠다고 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1	2	3	4	5
9	아버지께서는 자녀 스스로 행동하는 것을 관대하게 봐주시는 편입니까?	1	2	3	4	5
10	집이나 아버지를 떠나 자녀가 혼자 행동하는 것을 관대하게 봐주시는 편입니까?	1	2	3	4	5
11	아버지께서는 자녀로 인해 속상하고 화나는 일이 많으십니까?	1	2	3	4	5
12	자녀가 속상하게 하는 행동을 보일 때 아버지께서는 참으려 하다가 와락 성을 내거나 큰 소리를 치는 때가 있습니까?	1	2	3	4	5
13	아버지께서는 자녀의 행동 및 태도에 고쳐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14	아버지께서는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기	1	2	3	4	5

	위하시는 편입니까?					
15	아버지께서는 자녀 양육이 즐거울 때보다 짐스러울 때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16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이 무언가 해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강하게 갖고 계십니까?	1	2	3	4	5
17	아버지께서는 자녀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십니까?	1	2	3	4	5
18	아버지께서는 자녀가 스스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도록 해주십니까?	1	2	3	4	5
19	아버지께서는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갖는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20	아버지께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을 넓히기 위하여 독서도 하고 강연회 등에 참석하여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십니까?	1	2	3	4	5
21	아버지께서는 자녀의 정서적 특성이나 성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22	아버지께서는 자녀가 다른 유아나 어른과 잘 사귄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23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에게 ‘장손’, ‘맏딸’ 또는 집안의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노력하십니까?	1	2	3	4	5
24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아버지가 알고 있어야 제대로 교육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25	아버지께서는 가정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규칙과 규율을 많이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26	아버지께서는 자녀의 유치원(어린이집)생활의 모든 측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27	아버지께서는 자녀가 되도록 사회적으로 성공했으면 하고 바라는 편입니까?	1	2	3	4	5
28	아버지께서는 자녀에게 가능한 원대한 꿈과 포부를 갖도록 격려하여 보다 성공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1	2	3	4	5
29	아버지께서는 자녀에게 애정표현을 겉으로 잘 하십니까?	1	2	3	4	5

30	아버지께서는 자녀의 행동이나 성취해 낸 일(그림, 만들기)에 늘 관심을 갖는 편입니까?	1	2	3	4	5
31	아버지께서는 슬하에 자녀를 둔 것이 기쁘다고 자녀에게 말해 주십니까?	1	2	3	4	5
32	아버지께서는 자녀가 보이는 흥미, 관심거리에 대해서 자녀와 이야기를 자주하여 도움을 주십니까?	1	2	3	4	5
33	자녀에게 문제되는 행동이 있을 때 거리낌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의논하고 도움을 받으십니까?	1	2	3	4	5
34	아버지께서는 자녀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는 편입니까?	1	2	3	4	5
35	아버지께서는 자녀가 놀거나 공부할 때 되도록 집안에서 하도록 하십니까?	1	2	3	4	5
36	아버지께서는 자녀가 마음대로 하게 되면 버릇 들이기가 힘들게 되기 때문에 표현이나 움직임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37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이 사귀는 친구와 자녀들이 하는 말을 잘 보살펴서 나쁜 친구와 나쁜 일에 빠지지 않도록 지도하시는 편입니까?	1	2	3	4	5
38	아버지께서는 자녀를 양육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근심 걱정이 많이 생긴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1	2	3	4	5
39	아버지께서는 자녀가 클 때까지 다른 사람이 좀 키워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까?	1	2	3	4	5
40	아버지께서는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지겹다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1	2	3	4	5
41	다른 사람이 아버지를 대할 때 어려워하거나 까다로운 면이 있다고 하는 편입니까?	1	2	3	4	5
42	아버지께서는 자녀가 잘못했을 경우 일부러 쌀쌀맞게 대하고 따끔하게 이야기 하시는 편입니까?	1	2	3	4	5
43	아버지께서는 자녀가 속상하게 하는 행동을 보일 때 자녀의 행동을 못 본 체 할 수 없어 야단을 치거나 비평을 하시는 편입니까?	1	2	3	4	5
44	아버지께서는 자녀를 일일이 돌봐주지 않고 자기 혼자서 자리를 찾아 놀게 하는 편입니까?	1	2	3	4	5

45	아버지께서는 자녀가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자유를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1	2	3	4	5
46	아버지께서는 자녀가 할 수 있다면 비록 힘든 일이라도 혼자서 하도록 하십니까?	1	2	3	4	5
47	아버지께서는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끄집어 내지 않으시는 편입니까?	1	2	3	4	5

다음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O표 해주세요.

번호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거의 그렇 지 않 다	가끔 그렇 다	그런 편이 다	항상 그렇 다
1	아이를 돌보는 것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2	아이를 돌보는 것으로 내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가 없다					
3	시간에 맞춰 외출하기 위해 아이를 챙기는 일이 어렵다					
4	아이를 돌보느라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					
5	아이 때문에 항상 마음의 여유가 없고 초조한 편이다.					
6	아이를 돌보기 위해 내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7	아이와 함께 외출 했을 때 아이를 다루기가 어렵다.					
8	아이가 집을 너무 어지럽힌다.					
9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적이다.					
10	아이가 태어난 후 밀려있는 집안일이 짜증스럽다.					
11	나는 예전과 달리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이 적어졌다.					
12	아이가 생기고 나서 아내와의 관계에 예상외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13	내가 부모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기분이 들 때가 있다.					
14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15	요즘 들어 아이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데 소홀해졌다.					
16	아이를 낳은 후 나의 생활이 예전만큼 즐겁지가 않다.					

17	양육비용이나 탁아비용이 부담스럽다.					
18	모임에 참여하면서도 아이 생각에 그리 즐겁지 않다.					
19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20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다음은 자녀와 아버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으신 후 각 란에 따른 내용을 기재해 주시거나,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자녀의 수는 몇 명입니까?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이상

2. 자녀의 성별과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출생순위	성별	연령
① 첫째	남() 여()	()년 ()개월
② 둘째	남() 여()	()년 ()개월
③ 셋째	남() 여()	()년 ()개월

- 첫째와 둘째의 연령 차이는 ? ()년

- 둘째와 셋째의 연령 차이는 ? ()년

3. 아버지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4. 아버지의 교육정도는?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졸 ⑤ 대학원 이상

5. 아버지의 직업은?

① 전문직 ② 사무직 ③ 단순노동직 ④ 자영업 ⑤ 서비스업 ⑥ 교직
⑦ 공무원 ⑧ 기타 ()

6. 가족의 형태는 어떠합니까?

① 핵가족
② 대가족 (부모, 자녀 외에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_____)

7. 자녀의 주 양육자는 누구입니까?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할머니, 할아버지 ④ 친척 (조부모를 제외한)
⑤ 양육 도우미 (친인척을 제외한) ⑥ 기타 ()

<부록 2>

어머니 양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 설문지

<어머니용>

안녕하십니까?

본 질문지는 자녀 관련 변인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질문지의 내용은 연구를 위하여 사용될 것이며, 본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질문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므로 평소에 느끼신 대로 답해 주시기 바라며,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최근 늘어난 맞벌이로 인하여 아버지 양육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아버지의 견해와 어머니의 견해가 모두 필요하여 본 설문지를 두 분께서 각각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귀중한 시간 내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 드립니다.

201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석사과정

연구자 : 이 미 현 올림

지도교수: 배 지 희

어머니 양육태도 및 스트레스 질문지

다음 문항들을 읽으신 후, 평소 어머니의 견해나 행동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O표를 해 주세요.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1	어머니께서는 자녀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는 편입니까?	1	2	3	4	5
2	어머니께서는 자녀가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십니까?	1	2	3	4	5
3	어머니께서는 자녀가 속상하게 하는 행동을 보일 때 자녀의 행동을 못 본 체 할 수 없어 야단을 치거나 비평을 하시는 편입니까?	1	2	3	4	5
4	어머니께서는 자녀가 잘못했을 경우 일부러 쌀쌀맞게 대하고 따끔하게 이야기 하시는 편입니까?	1	2	3	4	5
5	자녀에게 문제되는 행동이 있을 때 거리낌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의논하고 도움을 받으십니까?	1	2	3	4	5
6	어머니께서는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끄집어 내지 않으시는 편입니까?	1	2	3	4	5
7	어머니께서는 자녀가 보이는 흥미, 관심거리에 대해서 자녀와 이야기를 자주하여 도움을 주십니까?	1	2	3	4	5
8	어머니께서는 자녀들이 사귀는 친구와 자녀들이 하는 말을 잘 보살펴서 나쁜 친구와 나쁜 일에 빠지지 않도록 지도하시는 편입니까?	1	2	3	4	5
9	어머니께서는 자녀가 마음대로 하게 되면 버릇들이기가 힘들게 되기 때문에 표현이나 움직임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10	어머니께서는 자녀가 놀거나 공부할 때 되도록 집안에서 하도록 하십니까?	1	2	3	4	5
11	어머니께서는 자녀가 할 수 있다면 비록 힘든 일이라도 혼자서 하도록 하십니까?	1	2	3	4	5
12	어머니께서는 자녀가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자유를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1	2	3	4	5

13	어머니께서는 자녀를 일일이 돌봐주지 않고 자기 혼자서 자리를 찾아 놀게 하는 편입니까?	1	2	3	4	5
14	다른 사람이 어머니를 대할 때 어려워하거나 까다로운 면이 있다고 하는 편입니까?	1	2	3	4	5
15	어머니께서는 자녀가 다른 유아나 어른과 잘 사귀는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16	어머니께서는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지겹다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1	2	3	4	5
17	어머니께서는 자녀가 클 때까지 다른 사람이 좀 키워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까?	1	2	3	4	5
18	어머니께서는 자녀에게 가능한 원대한 꿈과 포부를 갖도록 격려하여 보다 성공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1	2	3	4	5
19	어머니께서는 자녀를 양육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근심 걱정이 많이 생긴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1	2	3	4	5
20	어머니께서는 자녀가 되도록 사회적으로 성공했으면 하고 바라는 편입니까?	1	2	3	4	5
21	어머니께서는 자녀의 유치원(어린이집)생활의 모든 측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22	어머니께서는 가정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규칙과 규율을 많이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23	어머니께서는 슬하에 자녀를 둔 것이 기쁘다고 자녀에게 말해 주십니까?	1	2	3	4	5
24	어머니께서는 자녀의 행동이나 성취해 낸 일(그림, 만들기)에 늘 관심을 갖는 편입니까?	1	2	3	4	5
25	어머니께서는 자녀에게 애정표현을 겉으로 잘하십니까?	1	2	3	4	5
26	어머니께서는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갖는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27	어머니께서는 자녀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십니까?	1	2	3	4	5
28	어머니께서는 자녀들이 무언가 해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강하게 갖고 계십니까?	1	2	3	4	5
29	어머니께서는 자녀 양육이 즐거울 때보다 짐스	1	2	3	4	5

	러울 때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30	어머니께서는 자녀의 행동 및 태도에 고쳐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31	자녀가 속상하게 하는 행동을 보일 때 어머니께서는 참으려 하다가 와락 성을 내거나 큰 소리를 치는 때가 있습니까?	1	2	3	4	5
32	어머니께서는 자녀로 인해 속상하고 화나는 일이 많으십니까?	1	2	3	4	5
33	어머니께서는 자녀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34	어머니께서는 자녀의 요구를 무시하는 편입니까?	1	2	3	4	5
35	어머니께서는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거워하시는 편입니까?	1	2	3	4	5
36	어머니께서는 자녀들의 행동이 자랑스럽게 느껴지고 또 칭찬도 하시는 편입니까?	1	2	3	4	5
37	어머니께서는 어린 자녀들이 놀고 있을 때 자녀들이 노는 방식으로 허물없이 함께 놀아 주십니까?	1	2	3	4	5
38	어머니께서는 자녀의 정서적 특성이나 성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39	어머니께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을 넓히기 위하여 독서도 하고 강연회 등에 참석하여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십니까?	1	2	3	4	5
40	어머니께서는 자녀가 스스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도록 해주십니까?	1	2	3	4	5
41	집이나 어머니를 떠나 자녀가 혼자 행동하는 것을 관대하게 봐주시는 편입니까?	1	2	3	4	5
42	어머니께서는 자녀 스스로 행동하는 것을 관대하게 봐주시는 편입니까?	1	2	3	4	5
43	어머니의 도움을 거절하고 자녀 혼자 무엇을 하겠다고 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1	2	3	4	5
44	어머니께서는 자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아버지가 알고 있어야 제대로 교육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45	어머니께서는 자녀들에게 ‘장손’, ‘만딸’ 또는 집안의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노력하십니까?	1	2	3	4	5

46	자녀가 바르게 자라려면 부모를 어렵게 알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	--	---	---	---	---	---

다음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O표 해주세요.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1	아이를 돌보는 것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2	아이를 돌보는 것으로 내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가 없다					
3	시간에 맞춰 외출하기 위해 아이를 챙기는 일이 어렵다					
4	아이를 돌보느라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					
5	아이 때문에 항상 마음의 여유가 없고 초조한 편이다.					
6	아이를 돌보기 위해 내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7	아이와 함께 외출했을 때 아이를 다루기가 어렵다.					
8	아이가 집을 너무 어지럽힌다.					
9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적이다.					
10	아이가 태어난 후 밀려있는 집안일이 짜증스럽다.					
11	나는 예전과 달리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이 적어졌다.					
12	아이가 생기고 나서 남편과의 관계에 예상외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13	내가 부모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기분이 들 때가 있다.					
14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15	요즘 들어 아이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데 소홀해졌다.					
16	아이를 낳은 후 나의 생활이 예전만큼 즐겁지가 않다.					

17	양육비용이나 탁아비용이 부담스럽다.					
18	모임에 참여하면서도 아이 생각에 그리 즐겁지 않다.					
19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20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 다음은 자녀와 어머니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으신 후 각 란에 따른 내용을 기재해 주시거나,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자녀의 수는 몇 명입니까?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이상

2. 자녀의 성별과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출생순위	성별	연령
① 첫째	남() 여()	()년 ()개월
② 둘째	남() 여()	()년 ()개월
③ 셋째	남() 여()	()년 ()개월

- 첫째와 둘째의 연령 차이는 ? ()년

- 둘째와 셋째의 연령 차이는 ? ()년

3. 어머니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4. 어머니의 교육정도는?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졸 ⑤ 대학원 이상

5. 어머니의 취업여부 및 직업은?

① 전업 주부

② 취업모

전문직 사무직 단순노동직 자영업 서비스업 교직 공무원

기타 ()

6. 가족의 형태는 어떠합니까?

① 핵가족

② 대가족 (부모, 자녀 외에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_____)

7. 자녀의 주 양육자는 누구입니까?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할머니, 할아버지 ④ 친척 (조부모를 제외한)

⑤ 양육 도우미 (친인척을 제외한) ⑥ 기타 ()

